

# “정규직 전환으로 당당하게 출근하게 됐어요”

## 전북대, 청소용역 근로자에 임용장 수여

“아침에 눈을 뜨면 당당하게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진짜 현실이 되었네요.”  
 “매년 고용 승계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안하기만 했는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앞으로 자녀들에 부담 주지 않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3일 오후 3시 30분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는 행복하고도 특별한 그들만의 이야기가 꽃을 피웠다.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전북대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임용장 수여식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서 이남호 총장은 직원 한 명 한 명에 임용장을 전달하며 대학의 새 가족이 된 이들을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삼삼오오 원탁에 모여 서로 대화를 나누며 기쁨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화기애애한 시간도 이어졌다.

전북대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3일 오후 3시 30분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는 행복하고도 특별한 그들만의 이야기가 꽃을 피웠다.

정규직 전환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이어온오다가 국립대에선 최초로 117명의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청소용역 근로자 117명이 2018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년은 대부분 65세이며 6명의 1968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0세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급여 수준뿐 아니라 맞춤형 복지제도, 해외 연수, 직장 어린이집 이용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근로자 휴게실 개선과 청소 장비 기계화를 실현하는 등 근로 환경도 개선된다. /김민근 기자

## 남원여고 정치외교 동아리 사랑 나눔 실천 '훈훈'

왕정동 관내 남원여고 정치외교 동아리 학생들의 사랑 나눔 실천으로 관내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남원여고 정치외교 동아리는 정치, 외교, 역사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며 우리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조직했다.

정치외교 동아리 대표 박성미 외 9명의 학생들은 추운 겨울철 어렵게 생활하시는 독거노인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갈고 20박스를 마련하여 독거노인 20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정담을 나누며 전달했다.

콜상자를 전달 받은 독거노인은 밝게 웃으며 “예쁜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대단히 기쁘고 힘이 난다”며 행복해했다.

왕정동장 유세환은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기쁘고 대견했으며,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 솔선수범하는 인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장수군 거리천사 권호석씨 성금 기탁

쓰레기 줍는 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권호석씨(81, 장수군 천천면)가 올해도 어김없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돼지저금통을 장수군에 기탁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권호석씨는 “아름다운 기부로 모든 사람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쓰레기를 줍고 봉사활동을 하며 모은 돈 353,660원이 든 저금통을 장수군청 주민복지실에 기탁했다.

권 할아버지는 수십년째 전국을 누비며 쓰레기를 줍는 거리의 천사로 환경지킴이자 기부천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폭력예방 전개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통계방학 중 청소년이 해방감에 도취되어 일어날 수 있는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관내 초·중·고 대다수 학교가 일제히 겨울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연말·연시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정 및 학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성청소년계는 선도·보호 활동을 하면서 학교폭력예방 홍보 물품과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한 전단지 배부하여,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며 또한 학교폭력 발생시 117 및 112로 적극 신고하도록 하고,

특히, 학생들이 자주 찾는 PC방, 동전노래방 등을 방문하여 업주 및 종사자들에게는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선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고창초 등 6개교가 겨울·봄 방학 통합 실시로 1월 초 졸업식 및 종업식을 동시에 해 오는 9일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와 함께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경찰서는 2월 2일까지 주말 및 평일에도 자체순찰을 통하여 동계 방학 기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가시적으로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신덕면 이진수씨, 12년째 저소득 아동돕기 사랑의 성금 기탁

신덕면사무소는 신덕면 행복보장협의체 나눔분과 위원인 이진수씨 사기마을 복지이장이 저소득 아동을 위한 사랑의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진수 이장은 지난 12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연말연시를 즈음하여 관내 어려운 아동을 위한 성금을 기탁해 왔다.

그는 자신이 어렵게 자라온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매년 성금을 후원하고 있다.

신덕면 이환기 면장은 “매년 잊지 않고 사랑의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며 “이진수 이장님의 고마운 마음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연탄 나눔활동 나서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가 사랑의 연탄 나눔활동으로 2018년 새해를 맞이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3일 별도의 사무식 행사를 갖는 대신 법인 임원들과 전 직원들이 전주시역 에너지 소외계층 3가정을 찾아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새해 첫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식 봉사활동은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올 한해 소외이웃들에게 더 많은 지원 봉사의 따뜻한 손길이 전달되길 희망하며 실시했다.

이날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임원과 전 직원 30명은 평화동2주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독거어르신 가정 등 3가구에 각각 연탄 200정과 화장지 30롤 3팩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황의욱 이사장은 “2018년 새해에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전주 만들기를 위해 올 한해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혔다. /채규남 기자

## 진안읍 주민, 라면 40상자 무명 기부

진안군 진안읍의 한 주민이 익명으로 120만원 상당의 라면 40상자를 진안읍에 기부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익명의 기부자는 “올해 환갑을 맞아 주위에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자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춘성 읍장은 “기부해주신 물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담아 전달하고 앞으로도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832-3886	고창지사 563-6888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832-0955	정읍지사 538-3787
서산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호주지사 010-9845-9355	익산지사 859-9323	부안지사 010-245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왕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